

## 제5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12. 20.(화) 15:00 ~ 18: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이순일 의 장, 노재성 부의장, 김상배 평의원, 문우진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이준석 평의원, 오귀석 평의원, 최종원 평의원, 김준형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불참 : 구형건 평의원, 류동관 평의원)

### 4. 의안

#### ○ 보고사항

- 학칙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개정(안) 서면결의 결과

####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안)

#### ○ 자문사항

- 2016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 5. 주요 회의결과

#### 가. 보고사항

- 제58차 대학평의위원회(2016.7.21.)에서 학칙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개정(안)이 부결되어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 통과함
- 서면결의 일자 : 2016. 8. 17.(수)
- 서면결의 결과 : 평의원 13명 중 11명 찬성으로 심의 의결

#### 나. 심의사항 - 학칙 개정(안)

-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다

- 아주서비스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아주상담지원센터로 통합하는 수정안 관련: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서명 란>

의 장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레저학과 관련: 체육특기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신설 학과인 융합시스템공학과 관련: 입시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 신설 학과의 첫 해 운영 결과가 학과의 안착에 매우 중요하므로 입학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트랙 신설 관련: 학생설계트랙/도전트랙의 경우 졸업사정을 별도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트랙에 대하여 별도로 졸업사정을 한다는 교무팀의 설명이 있었음. 학생설계트랙/도전트랙의 세부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함
- 교육부의 법과대학 폐지 시기 정정과 관련한 부칙 개정안 관련: 폐지 이후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법학사 졸업이 가능한지 질의한 바, 가능함을 확인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별표1 통번역연구소 신설,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제8조(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전공 폐지 및 신설(통합치의학)
- 제21조(학생정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정원 동결, 특수대학원 정원 변경(임상치의학대학원 5명 ↑,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5명 ↓), 학사과정 정원 동결
-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트랙) 전공특화트랙, 학생설계트랙, 도전트랙 신설
- 부칙 법과대학 폐지 연기(2017.3 -> 2018.3)

자세한 사항은 2016년 13차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 다. 자문사항

### ○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함

<간서명 란>

의 장



## 2) 자문사항

- 교비회계 규모(자금수입 또는 자금지출 총계)가 적절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남(2016 1차 추경 대비 111.9억 감소)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6년 1차 추경 대비 19.3억 감소. 특히, 대학원 등록금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기부금 수입도 2016년 본예산 및 1차 추경(60.0억 원) 대비 2차 추경에는 54.6억 원으로 축소됨. 결산까지 100%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교비 대체 규모는 22.2억 원에 달함
  - 이는 법인이 본교 법정부담금의 58.1%(30.8억)만 전입해 발생한 문제
  - 법인이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도 법정부담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 대학본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함
  - 비정규직 직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법인부담금의 교비 대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 3항목의 교비 대납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부속병원이 본교 지원을 위해 의과대학 건물(송재관) 관련 제비용 9.26억 원을 전출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경상비전입금 수입이 교비회계에 실현되지 않았음
- 2차 추경에도 소송당사자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으로 되어 있는 소송들의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됨. 이 문제를 검토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기금인출수입 감소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과임. 동 사업은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선택까지 포함하여 원점 재검토가 필요함.
- 법인이 의대에 전입한 경상비 26.4억 원에는 장례식장 수익 배분 22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대학본부가 장례식장의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법정 부담금 100% 전입 및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 1차 추경 시 자문한 문제들(법정전입금 및 소송비용의 교비 대납, 송재관 관련 경상비전입금 수입 누락)이 2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임

<간서명 란>

의 장





○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조정실장이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 1차 추경 시 자문한 것과 같이 중요 지표들에 대해 재정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달성도를 정리·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이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나, 2차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다시 0.87%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과 관련해 예측 가능 수준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주요 대학부속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이 평균 33.4%로 대동소이한 것을 고려할 때, 본교 병원의 재료비율에는 개선 여지 있음
  - 본교 병원의 의료재료 공급이 (주)대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을 낮추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 부속병원전출금 관련
  - ‘광고사업관련 전출금’은 책정 근거가 불명확함. 1차 추경 시 자문한 것과 같이 광고사업과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변제 및 법인자금 투입에 따른 상실이자소득 대체 등 제 항목을 모두 포함한 ‘연차별 광고사업관련 자금 전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 법인이 의대에 전입한 64.7억 원 중 경상비전입금 26.4억 원에는 이전 장례식장 수입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따른 2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청취함
  - 장례식장의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수익 증가에 따른 전입금 증가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사업 지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속병원의 예·결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 및 인력들은 병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간서명 란>

의 장



2016. 12. 20.(화)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순일	(서명)
부위원장	노재성	(서명)
평의원	김상배	(서명)
평의원	구형건	(서명)
평의원	문우진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평의원	류동관	(서명)
평의원	이준석	(서명)
평의원	오귀석	(서명)
평의원	최중원	(서명)
평의원	김준형	(서명)
평의원	이삼구	(서명)
간 사	김종현	(서명)